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 비교 연구*

이 상 희¹⁾

정 지 후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새로운 진로정체감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우리나라 대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상태를 분류하고, 진로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은 진로정체감 연구에서 기존 Marcia(1980)의 제한적 분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정체감 단계 중 성취 단계와 탐색유예 단계 그리고 정체감 스타일 중 정보지향적 스타일에서 통찰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단계(VISA)에서는 성취 단계, 유실 단계, 탐색유예 단계가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을 나타내고 있고, 정체감 스타일에서는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내러티브 정체감에서는 통찰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제한점과 이후 다양한 정체감 차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신념

* 이 연구는 2014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와 2014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 비)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4S1A3A2044196).

1) 교신저자 :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E-mail : sanglee@kw.ac.kr)

I. 서론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정체감 확립 대역할갈등의 발달과업을 통하여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Erikson, 1968), 특히 진로발달에서 개인의 정체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진로정체감이 제시되어왔다.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의 목표 직업을 정하며 진로의사결정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왔기 때문에(김선환, 2007) 많은 연구들에서 직업적 정체감 확립과 진로 선택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과, 전반적인 정체감 과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어왔다(Skorikov & Vondracek, 1998).

한편 Marcia(1980)는 개인의 진로정체감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정체감 단계 모델을 제안하여 Erikson(1968)의 정체감 가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Marcia(1980)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감 단계는 관여와 탐색의 2개 차원에 따라 성취, 유예, 유실, 혼미 중 하나로 구분될 수 있으며, 4개 정체감 단계는 이후 수많은 진로정체감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진로정체감 단계분류방식이 되어왔다(Schwartz & Dunham, 2000). 그러나 최근 들어 Marcia(1980)의 정체감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는데, 관여와 탐색수준이 좀 더 세분화되어 측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절단점을 사용한 분류 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Erikson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가 오히려 Erikson의 관점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발달적 접근방

식이 아니며 개인의 주관적 해석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문경숙, 2009; Luyckx, Goossens, Soenens, Beyers, & Vansteenkiste, 2005; Meeus, 1996).

사실 Marcia(1980)의 모델이 발표된 이후로 Marcia(1980)가 사용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나 미완성 문장완성하기 방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왔다. OM-EIS(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dams, Shea, & Fitch, 1979)와 EOM-EIS(Extended Version of OM-EIS; Grotevant & Adams, 1984)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체감 도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EOM-EIS의 8개 정체감 영역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문경숙, 2009). 이외에도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형태(1989)의 지위분류형 자아정체감 척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척도는 범주 척도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측정치들에 비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는데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Schwartz & Dunham, 2000). 장지선(2003)은 Melgosa(1987)가 개발한 진로정체감척도(Occupational Identity Scale: OIS)를 변안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혼미 단계의 신뢰도가 .32로 나타나 혼미 단계의 학생들을 분류할 수가 없었으며, Holland, Gottfredson 및 Power(1980)가 개발하고 김봉환(1997)이 타당화한 나의 직업적 상황(My Vocational Situation: MVS) 척도의 경우, 다차원의 복잡한 구성체인 진로정체감을 단일의 구성체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Mauer & Gysbers, 1990).

이처럼 정체감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이를 위한 적절한 측정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진로정체감 연구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로정체감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을 선택하여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 분류방식에 따라 대학생들을 분류하여 진로정체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정체감 단계(VISA) 모형은 기존 Marcia의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긍정적 유예 단계의 확인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며,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체감 연구의 양적인 접근법과 질적인 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의 영역을 크게 직업과 이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직업에 대한 Marcia(1980)의 정체감 단계 이론을 진로에 적용하여,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로발달과 진로정체감 단계 연구를 시행하여 왔다(Hirschi, 2010; Vondracek & Porfeli, 2003).

진로정체감 지위평가(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 모형은 Meeus와 Crocetti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된 것인데, Meeus, Van de Schoot, Klimstra와 Branje(2011)은 기존의 탐색과 관여 차원에 대해서 탐색 차원은 넓은 탐색과 깊은 탐색으로, 관여 차원은 관

여 형성과 관여 동일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관여의 재고려 차원을 새로 추가하여 새로운 진로정체감 지위평가 방식을 구축하였다. 관여의 재고려는 현재 결정된 진로선택에서 자유로우며, 다른 대안적인 진로를 비교, 대조하여 폭넓은 탐색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VISA 모형은 관여의 재고려 차원을 다시 진로 자기회의(career self-doubt)와 진로 유연성(career flexibility)의 두 개 차원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기존 Marcia (1980)의 진로정체감 단계를 6개 차원으로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Porfeli, Lee, Vondracek, & Weigold, 2011). VISA의 6개 차원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정체감 단계를 확인하면 총 여섯 개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성취, 유예, 유실, 혼미 단계 외에 탐색유예와 미분화 단계를 새롭게 추가하여 분류한다(Porfeli et al, 2011; 이상희, 오보영, 2013).

관여의 재고려 차원을 사용하는 것은 진로정체감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유용한 데(Crocetti, Rubini, Luyckx, & Meeus, 2008), 유예 단계를 적응적 유예와 부적응적 유예 단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Luyckx et al., 2008). 사실, 유예 단계는 자신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며,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발달 양상과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감 발달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다(Meeus, 2011). 그러나 Marcia의 모델로 도출된 유예 단계는 Erikson이 언급한 유예 단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문경숙, 2009), 유예 단계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인식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분류된 탐색유예 단계는 유예 단계의 긍정적 모습을 잘 반영하는 이점을 가진다. 탐색유예 단계는 성취 단계와 유예 단계 사이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진로정체감 유예에서 성취로 발달 중이거나, 진로정체감 성취에서 진로결정을 수정하기 위해 유예 단계로 돌아가 재고려를 하는 개인을 반영하는 단계로, 개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발달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rocetti et al., 2008). 즉 이전에는 같은 유예 단계로 분류되었던 개인을 그들의 발달수준에 따라 유예 단계와 탐색유예 단계로 분류함으로써, 성취 단계에 좀 더 가까운 적응적 유예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정체감 형성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Berzonsky(1992a)는 정체감을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따라서 개인의 정체감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달지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자신을 이론화하면서 정체감 문제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erzonsky의 정체감 스타일은 Marcia의 정체감 단계를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재조명한 것으로서, Berzonsky(1990)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구조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인지성향에 따라 정보지향적, 규범지향적, 혼미/회피지향적의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로 개인을 구분하였다. 정체감 스타일은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를 처리할 때 개인이 일반적으로 쓰는 전

략 혹은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정보지향적 스타일(information-oriented)은 탐색에 대한 강한 동기와 함께 활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처리하고, 자기-관련 정보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규범지향적(norm-oriented) 스타일은 부모처럼 중요한 타인의 기대나 특정 기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특성화된다. 이들은 변화에 저항적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diffuse/avoidance-oriented)은 미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행동을 미루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Berzonsky에 따르면 개인은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정체감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며,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감 관련 이슈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최근 들어 양적인 연구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자아정체감을 이해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개인 중심적 접근 방식의 자아정체감 연구방법이 제기되고 있다(Meeus, 2011). 이중 정체감 발달에 대한 질적 접근방법의 일환인 내러티브 정체감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이야기와 같은 형태로 조직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McAdams, 2006).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늘어놓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똑같은 과거의 사건이라도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현재 입장과 견해에 따라 내러티브가 달라지며 자신의 독특함이 내러티브 속에 묻어나오게 되기 때문이다(문경숙, 2009).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체감 형성을 위한 중심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Ibarra & Barbulescu, 2010), 이처럼 내러티브 정체감의 의미부여 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체감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문경숙, 2009). Marcia의 접근은 실제 사람들이 살면서 접하는 수많은 개인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적 접근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역사를 기술하게 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함을 갖는다(김근영, 2012).

내러티브 정체감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과거 경험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한 생애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이질적인 상황이나 사건이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 부여(narrative meaning-making)라 부른다. 개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자신과 타인에게 납득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신에 대한 일종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

McAdams(2006)는 정체감은 삶에 대한 이야기(life story)라고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내러티브 정체감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현재의 자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거 삶의 경험을 회상하는 자서전적 사고(autobiographical reasoning)를 통해 가능해진다. 자서전적 사고란 과거의 특정 경험과 자기 간의 관련성을 만들어내고 그 관련성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McLean & Fournier, 2008). 개인은 자서전적 사고를 통해 과거의 경험과 자기 간의 관계를 인과적이고 체계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며 의미를 만들면서 자신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게 된다. 내러티브 정체감의 의미부여 방식은 자아정체감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완전하게 양적 연구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아정체감의 질적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진로정체감 분류 방식들 간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정체감 단계는 정체감 스타일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되어왔으며(Berzonsky, 1989),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erzonsky(1992a)는 Marcia의 정체감 단계에서 성취나 유예로 분류되는 자기탐색적 개인은 정보지향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유실 단계의 개인은 주된 관심이 중요한 타인이나 준거 집단의 기대와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지향적 스타일을 사용할 것으로, 마지막으로 혼미 단계의 개인은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상희와 박진희(2013)의 연구결과, Berzonsky(1992a)의 가정과 유사한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로정체감 단계(VISA)나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

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정체감 단계와 정체감 스타일 분류방식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진로정체감 접근 방식을 통해 분류된 정체감 상태(status)를 중심으로 하여 각 상태에 따른 진로발달 정도를 비교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성숙과 진로신념을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진로정체감은 진로성숙 및 진로미결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음이 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왔다(조은주, 2001; Graef, Wells, Hyland, & Muchinsky, 1985). 또한 진로정체감과 진로신념 간에도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상관이 있으며(정운정, 2010), 진로자기평가에서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진로신념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박영희, 2011). 따라서 각 진로정체감 접근방식으로 따라 분류된 진로정체감 상태들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각 진로정체감 측정방식이 진로발달을 어느 정도나 잘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고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 측정방식에 따라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단계(VISA)와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와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세 가지 진로정체감 접근방식에 따라 분류된 진로정체감 상태(status)들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교 243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수업시간을 통해 집단적으로 실시되거나 개인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걸린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92명(79.0%), 자연·공학계열 30명(12.3%), 경상계열 14명(5.8%), 예술·체육계열 3명(1.2%), 기타 전공 4명(1.6%)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N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남학생	23(8.5)	24(8.9)	30(11.1)	53(19.7)	130(53.5)
여학생	25(9.3)	24(8.9)	21(7.8)	43(15.9)	113(46.5)
전 체	48(17.8)	48(17.8)	51(18.9)	96(35.6)	243(100)

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진로정체감 단계 척도

진로정체감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Crocetti 등(2008)에 의해 개발되고 Porfeli 등(2011)에 의해 수정된 VISA 척도(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를 이상희와 오보영(2013)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는 진로탐색, 관여, 관여의 재고려 3개 차원에 대해 각 10문항씩(각 차원의 두 가지 하위 척도마다 각 5개의 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은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탐색 차원은 깊은 탐색과 넓은 탐색으로, 관여 차원은 관여 형성과 관여와의 동일시로, 관여의 재고려 차원은 자기의심과 진로 유연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보라, 정지희 및 이정림(2014)의 연구에서, 본 척도를 번역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요인의 6개 구조가 한국인에게도 적합함이 확인되었으며, 군집분석 결과에서도 미국인에게서 나타난 진로정체감 단계가 한국인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 본 척도의 타당화가 검증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차원들의 점수분포 특성에 따라 진로정체감 단계가 분류된다. 이상희와 오보영(2013)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탐색차원은 .85, 관여차원 .82, 관여 재고려 차원 .80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탐색차원은 .84, 관여차원 .84, 관여 재고

려 차원 .87로 나타났다.

정체감 스타일 척도

정체감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zonsky(1992b)가 개발하고 개정한 정체감 스타일 검사(Identity Style Inventory 3: ISI 3)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연구진의 번역과 이중언어 사용자의 역번역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자아정체감 스타일 척도(ISI 3)는 정보지향적, 규범지향적, 혼미/회피지향적의 세 가지 스타일로 구분한다. 분류는 세 가지 하위척도의 각 항목을 합친 후에 원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환산한 후, 환산된 스타일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스타일로 분류하게 된다. 척도는 정보지향 11문항(예: 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가진 대안들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규범지향 9문항(예: 나는 오픈마인드 보다는 확고한 신념체계를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혼미/회피지향 10문항(예: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적인 문제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요인의 5개 구조가 비교적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박진희와 이상희(2013)는 본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정체감 스타일에 따라 정체감 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정체감 스타일이 심리사회적 성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여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증명하였다. Berzonsky(1997)가 보고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정보지향적 .70, 규범지향적 .64, 혼미/회피지향적 .76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정보지향적 .70, 규

범지향적 .59, 혼미/회피지향적 .73으로 나타났다.

내러티브 진로정체감

내러티브 진로정체감 질문지는 총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장은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장은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장은 위의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장에 기술된 참가자들의 의미부여 내용을 McLean과 Thorne(2003)의 선형 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McLean과 Pratt(2006)은 개인이 정체감을 서술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교훈(lesson)과 통찰(insight)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하였는데, 교훈은 보통 행동적으로 관찰되며 비슷한 사건이나 상황에 얼마나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말하며, 통찰은 언급된 상황을 넘어서 더 큰 자아에 얼마나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각 점수치는 심리학 박사, 박사과정, 석사과정 각 1명씩 총 3명의 평정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각각의 진로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1-4점(1점 = 의미없음, 2점 = 교훈, 3점 = 교훈과 통찰사이, 4점 = 통찰)으로 평정을 하였다. 1점은 내러티브에 어떠한 의미도 없을 때 부여되었으며, 2점은 내러티브에 교훈의 의미가 포함되었을 때 부여되었다(예: 나는 로펌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법률 분야의 실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다른 분야의 일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점은 교훈보다는 약간 더 복잡한 의미를 포함하지만, 통찰만큼 확실하지는 않은 약간의 의미가 있을 때 부여되었으며(예: 그 사건은 나의 진로에 있어서, 내가 약학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주었고.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나는 학업 이외에서의 나의 가치를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4점은 내러티브에 통찰이 있을 때 부여하였는데, 통찰은 특정 사건을 뛰어넘어 그 사람 자신과 세상 또는 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라는 확장된 의미로 정의하였다(예: 수시 1차를 불합격하고 2차에서 정말로 원하는 대학교에 붙었을 때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며 살자’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고 고마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내가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실패와 고난이 나에게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정자 간의 신뢰도는 .78 수준이었으며, 이후 차이가 나는 평정 점수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부여하였다.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태도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10개의 결정성 문항과 10개의 준비성 문항, 9개의 독립성 문항, 8개의 목적성 문항과, 10개의 확신성 문항으로 총 5요인 4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의 총점을 합하여 전체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5에서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하위요인별로 결정성 .73, 목적성 .83, 확신성 .72, 준비성 .63, 독립성 .75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진로신념

Krumboltz(1991)가 개발한 진로신념검사(Career Beliefs Inventory; CBI)에 기초하여, 송보라와 이기학(2010)이 개발한 한국판 진로신념 척도(K-CB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요인(외적가치, 통제감, 내적가치, 명확성, 유연성)의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통제감(13문항), 명확성(8문항), 유연성(8문항)의 3개 요인을 사용하여 진로신념을 측정하였다. 송보라와 이기학(2010)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통제감 .83, 명확성 .74, 유연성 .7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통제감 .83, 명확성 .81, 유연성 .80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연구에 사용된 진로정체감 단계(VISA)의 6개 하위요인인 넓은탐색, 깊은탐색, 관여형성, 관여동일시, 자기의심, 진로유연성과 3개 정체감 스타일인 정보지향 스타일, 규범지향 스타일, 혼미/회피 지향 스타일, 그리고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변인들 간의 상관과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2. 진로정체감 단계(VISA)에 따른 집단 분류

기존 연구들에서 VISA 모형의 6개 하위차원을 사용하면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는 것(이상희, 오보영, 2013; Porfeli et al., 2011)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 단계가 6개 차원에 따라 6개 단계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고자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으로 Ward의 위계적 군집분석과 제곱 Euclidean 거리법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적절한 군집의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이전의 단계에서 확인된 6개의 군집으로 집단이 형성되도록 비계층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하면서 군집의 평균 중심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K-평균 군집분석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총 243명의 참가자가 6개의 군집으로 모두 분류되었다. 분류된 6개의 단계는 Porfeli 등(2011)의 진로정체감 단계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Porfeli 등(2011)의 진로정체감 단계를 따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하위 군집들이 유의미하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6개 차원을 독립변인으

표 2.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관계

(n = 24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넓은탐색	1											
2. 깊은탐색	.41***	1										
3. 관여형성	-.10	.40***	1									
4. 관여동일시	-.01	.49***	.54***	1								
5. 자기의심	.27***	-.24***	-.41***	-.50***	1							
6. 진로유연성	.31***	-.14*	-.42***	-.36***	.67***	1						
7. 정보지향	.29***	.29***	.02	.22***	-.02	.15*	1					
8. 규범지향	.14*	.10	.08	.29***	-.21***	-.13*	.31***	1				
9. 흥미/ 회피지향	.04	-.10	-.07	-.17**	.23***	.26***	-.14*	-.21**	1			
10. 내러티브	.25***	.21***	.12	.20**	-.04	.05	.21**	.03	-.02	1		
11. 진로태도 성숙	.10	.41***	.47***	.59***	-.46***	-.32***	.24***	.41***	-.18**	.16**	1	
12. 진로신념	.23***	.43***	.27***	.54***	-.41***	-.19**	.39***	.50***	-.26***	.18**	.64***	1
평균(M)	3.40	3.64	3.03	3.65	2.82	3.41	3.36	3.25	2.60	2.05	3.07	3.74
표준편차(SD)	.81	.66	.81	.67	.92	.68	.44	.64	.53	.83	.31	.41

* $p < .05$. ** $p < .01$. *** $p < .001$.

로 하고 6개의 군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6개 집단은 6개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판별분석 결과, 각 집단에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hit ratio)이 약 97.4%로 나타나 VISA의 6개 차원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6개의 군집으로 유익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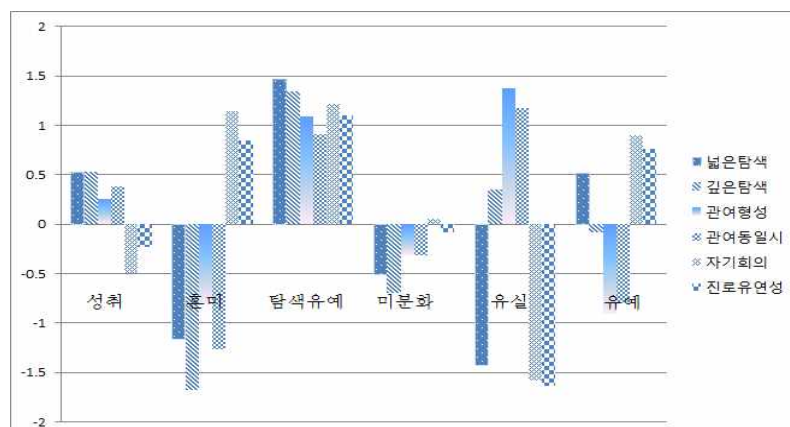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정체감 6개 단계의 Z점수 평균

3.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분류

Berzonsky(1989, 1992b)가 개발하고 개정한 정체감 스타일 검사(Identity Style Inventory 3: ISI 3)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정체감 스타일을 분류하였다. 분류는 세 가지 하위척도의 각 항목을 합친 후에 원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환산한 후, 환산된 스타일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개인의 정체감 스타일로 분류한다. 분류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체감 스타일은 정보지향 스타일 91명(33.7%), 혼미/회피지향 스타일 91명(33.7%)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규범지향 스타일 88명(32.6%)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진로정체감 단계(VISA)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단계에 따른 내러티

브 정체감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체감 6개 단계와 내러티브 정체감 4개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포차이의 유의미성과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과 분할계수, Cramer V값을 확인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Cramer V값은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의 관련성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0에 가까울수록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정체감 단계와 내러티브 정체감 분포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성취 단계는 유의미하게 통찰수준이 많고, 의미없음 수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유예 단계는 다른 수준에 비해 통찰수준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예, 유실, 혼미 단계는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에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분화 단계는 다른 단계에 비해 통찰수준이 유의미하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진로정체감 6개 단계의 Z값 평균과 빈도

(N)

		1. 성취 (82)	2. 혼미 (21)	3. 탐색유예 (15)	4. 미분화 (55)	5. 유실 (22)	6. 유예 (48)	F	Scheffé/Dunnett T3
탐색	넓은탐색	.51	-1.17	1.48	-.49	-1.32	.53	104.07***	3 > 1, 6 > 4 > 2, 5
	깊은탐색	.54	-1.67	1.34	-.71	.23	-.08	68.87***	3 > 1, 5 > 6 > 4 > 2
관여	관여형성	.27	-.81	1.08	-.31	1.34	-.93	60.37***	3, 5 > 1 > 4 > 2, 6
	관여동일시	.43	-1.27	.91	-.31	.94	-.80	57.06***	3, 5 > 1 > 4 > 2, 6
관여	자기의심	-.49	1.14	1.32	.04	-1.46	.89	128.22***	2, 3, 6 > 4 > 1 > 5
재고려	진로유연성	-.24	.85	1.12	-.07	-1.49	.77	66.36***	2, 3, 6 > 1, 4, > 5

*** $p < .001$.

표 4. 진로정체감 단계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

N (%)

내러티브 정체감 지위	의미없음	교훈	교훈/통찰	통찰	합계	분석 결과	
성취	11(13.4)	45(54.9)	16(19.5)	10(12.2)	82(33.7)	χ^2	44.96***
혼미	9(42.9)	10(47.6)	2(9.5)	0(0.0)	21(8.6)		
탐색유예	2(13.3)	4(26.7)	4(26.7)	5(33.3)	15(6.2)	분할계수	.40
미분화	20(36.4)	28(50.9)	7(12.7)	0(0.0)	55(22.6)		
유실	7(31.8)	13(59.1)	2(9.1)	0(0.0)	22(9.1)	Cramer V	.25
유예	13(27.1)	27(56.3)	7(14.6)	1(2.1)	48(19.8)		
전체	62(25.5)	127(52.3)	38(15.6)	16(6.6)	243(100.0)		

*** $p < .001$.

5.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체감 3개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 4개 수준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포차이의 유의미성과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과 분할계수, Cramer V 값을 확인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다른 수준에 비해 교훈/통찰과 통찰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지향과 혼미/회피지향 스타일은 내러티브 정체감 분포에 특별한 특징이 나타

나지 않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 분포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진로 정체감 단계(VISA)와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의 차이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간에 상관관계는 .60 ($p < .01$)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체감,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 분석을 사용하였다. VISA의 6개 진로정체감

표 5.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

N(%)

내러티브 정체감스타일	의미없음	교훈	교훈/통찰	통찰	합계	분석 결과	
정보지향	20(25.6)	35(44.9)	14(17.9)	9(11.5)	78(32.1)	χ^2	9.36
규범지향	25(31.6)	42(53.2)	9(11.4)	3(3.8)	79(32.5)		
혼미/회피지향	17(19.8)	50(58.1)	15(17.4)	4(4.7)	86(35.4)	분할계수	.19
전체	62(25.5)	127(52.3)	38(15.6)	16(6.6)	243(100.0)		

표 6. 진로정체감 6개 단계에 따른 진로성숙과 진로신념의 차이

	1. 성취 <i>M(SD)</i>	2. 혼미 <i>M(SD)</i>	3. 탐색 유예 <i>M(SD)</i>	4. 미분화 <i>M(SD)</i>	5. 유실 <i>M(SD)</i>	6. 유예 <i>M(SD)</i>	Wilks' Lambda	<i>F</i>	Scheffé
진로 성숙	3.28 (.24)	2.76 (.38)	3.34 (.23)	3.12 (.26)	3.37 (.17)	2.99 (.26)	.601	13.70 ^{***}	1, 3, 5 > 4, 6, > 2
진로 신념	3.91 (.27)	3.23 (.39)	3.94 (.44)	3.64 (.32)	3.69 (.42)	3.60 (.39)			1, 3 > 4, 5, 6 > 2

*** $p < .001$.

표 7.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진로성숙과 진로신념의 차이

	1. 정보지향적 <i>M(SD)</i>	2. 규범지향적 <i>M(SD)</i>	3. 혼미/회피지향 <i>M(SD)</i>	Wilks' Lambda	<i>F</i>	Scheffé
진로성숙	3.26 (.30)	3.12 (.32)	3.08 (.27)	.895	6.85 ^{***}	1 > 2,3
진로신념	3.87 (.33)	3.60 (.47)	3.67 (.33)			1 > 2,3

*** $p < .001$.

표 8. 내러티브 정체감에 따른 진로성숙과 진로신념의 차이

	1. 의미없음 <i>M(SD)</i>	2. 교훈 <i>M(SD)</i>	3. 교훈과통찰 <i>M(SD)</i>	4. 통찰 <i>M(SD)</i>	Wilks' Lambda	<i>F</i>	Scheffé
진로성숙	3.11 (.38)	3.13 (.28)	3.22 (.27)	3.33 (.22)	.922	2.50 [*]	4 > 3 > 1,2
진로신념	3.65 (.48)	3.68 (.34)	3.85 (.40)	3.91 (.34)			3,4 > 1,2

^{*} $p < .05$.

단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60, $F =$

13.70, $p < .001$). 이후 사후분석결과를 통해 진로태도성숙은 유실 단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탐색유예, 성취 단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화, 유예, 혼미 단계는 상대적으

로 낮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신념은 탐색유예 단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취 단계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유실 단계와 미분화 단계 그리고 유예 단계는 중간 점수를, 흥미 단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정체감 3개 스타일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체감 스타일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90$, $F = 6.85$, $p < .001$).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모두에서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규범지향적, 흥미/회피 지향적 스타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4개 내러티브 정체감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내러티브 정체감 수준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92$, $F = 2.50$, $p < .05$). 진로태도성숙은 통찰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훈/통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없음과 교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찰수준과 교훈/통찰 수준이 높은 수준의 진로신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의미없음과 교훈 수준은 낮은 진로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기존 Marcia(1980)의 모델을 따른 정체감 분

류방식은 Erikson의 정체감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개인의 정체감 발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제시되어 왔다(Blasi & Glodis, 1995; van Hoof, 1999). 또한 국내에서 정체감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측정방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점들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정체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체감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정체감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에 진로정체감 단계(VISA)와 정체감 스타일, 내러티브 정체감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을 분류하고, 각 진로정체감 측정방식이 진로발달을 어느 정도나 잘 분류하고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들에서 하나의 정체감 단계에 속하는 개인들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정체감 단계의 분류가 진로정체감의 발달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이 제시되어 왔다(Meeus, 2011). 이에 Porfeli 등(2011)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관여와 탐색 차원 이외에 관여의 재고려라는 세 번째 차원을 추가하여 새로운 진로정체감 평가 방법인 VISA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단계(VISA)의 6개 차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단계를 구분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Porfeli 등(2011)의 결과처럼 6개의 군집 -성취, 탐색유예, 유예, 유실, 흥미, 미분화-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진로정체감 단계(VISA) 측정방식은 진로정체감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방식인데(Crocetti et al., 2008), 이는 기존의 유

에 단계를 적응적 유예와 부적응적 유예 단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적응적 유예의 모습인 탐색유예 단계는 Porfeli 등(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탐색 및 관여 차원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성취 단계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탐색유예 단계를 성취 단계와 유예 단계 사이를 이동하며 발달 중인 개인으로 볼 때 우리나라 탐색유예 단계의 대학생들은 유예 단계보다는 성취 단계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탐색유예 단계 대학생들은 선행 연구처럼 안정적인 기초에서 새로운 탐색을 하는 유연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Crocetti et al., 2008). 탐색유예 단계의 분류를 통하여 기존의 유예 단계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체감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정체감 단계(VISA) 모형은 진로정체감 단계 및 발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세분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체감 연구의 확장과 심도 깊은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정체감 형성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진행되면서, Berzonsky(1992a)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자신을 이론화하면서 정체감의 문제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erzonsky(1990)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자기구조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식의 차이를 인지성향에 따라 정보지향적, 규범지향적, 혼미/회피지향적의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개인은 정보에 접근하는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정체감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가정되어지는데(Berzonsky, 1990),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기존 외국의 경우처럼 특별히 선호하거나 치중된 정체감 스타일이 존재하지 않고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체감 스타일 측정방식은 기존의 진로정체감 발달 단계 분류방식이 아닌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개인의 인지과정의 측면을 재조명하여 설명함으로써, 진로정체감 연구에서 개인의 인지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개인의 ‘인생사 자체’를 정체감 발달의 핵심으로 보는 내러티브 정체감 접근이 주목을 받고 있다(McAdams, 2006). 기존의 정체감 연구와 비교할 때, 내러티브 정체감은 정체감 발달에 필수적인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다(양재원, 양은주, 김근영, 2012). 내러티브 정체감은 개인의 정체감 발달 과정을 재조명해주며, 과거를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여 시간에 따른 개인 연속성의 구조를 세워주고, 또한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해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Pasupathi & Hoyt, 2009). 연구자들은 과거에 대한 내러티브 구축과정이 독특한 자기와 정체감을 넓게 발달시키는 가장 중

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며(McLean, Pasupathi, & Pals, 2007; Pasupathi, 2001), 결과적으로 개인은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연속적인 구조와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의미를 만들 수 낼 수 있으며, 내러티브 해석의 이해와 실체가 진로연구에서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Collin & Young, 1992). 본 연구의 결과, 참여 대학생들의 내러티브 정체감 의미부여는 의미없음이 68명(25.2%), 교훈이 139명(51.5%). 교훈과 통찰사이가 44명(16.3%), 통찰이 19명(7.0%)으로 평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내러티브 정체감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분포인 것을 알 수 있다(양재원, 양은주, 김근영, 2012; McLean & Thorne, 2003). 본 연구 결과 첫째, 자신의 진로 경험에서 교훈 수준의 깨달음을 얻은 대학생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의미없음과 교훈/통찰 사이가 중간정도, 통찰 수준은 가장 적은 대학생들이 해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정체감 의미부여의 교훈수준에 해당되는 참가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진로 사건이나 기회의 경험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진로 사건이나 기회에서 더 계획적이고 적응적으로 잘해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교훈/통찰 수준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지만, 교훈보다는 조금 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원론적인 깨달음을 얻고 의미부여를 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과거의 진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통찰 수준의 의미부여를 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자신

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 정체감은 기존 Marcia의 접근을 벗어나 개인사적 정체감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자유도가 높은 유용한 질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김근영, 2012).

둘째, 진로정체감 단계(VISA)와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진로정체감 단계와 내러티브 정체감 분포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진로정체감 단계(VISA)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을 확인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성취 단계가 가장 성숙한 단계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유실 단계가 유예나 탐색유예 단계보다 높은 진로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상희, 오보영, 2014). 유실 단계가 성취 단계와 비슷한 진로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진로결정이 탐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며 일단 진로가 결정된 상태일 때 개인이 느끼는 진로 안정감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유예 단계는 청소년이 자신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며, 특히 탐색유예 단계는 적응적 유예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유예 단계는 다른 수준에 비해 통찰수준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취 단계와 유예 단계 사이에서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며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단계의 특성만큼 내러티브 정체감에서도 여러 가지 진로 경험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해 좀 더 통찰적인 이해와 높은 수준의 의미부여

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탐색유예를 유실보다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갖춘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내러티브에서 통합적이고 성취적 정체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더 일관적인 내러티브를 나타낸다는 결과들(Dunbar & Grotevant, 2004)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유예의 진로발달 수준이 유실 단계보다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하여 주며 이는 진로정체감 단계에 따른 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내러티브 정체감과 의미부여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 의미부여의 분포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다른 수준에 비해 교훈/통찰과 통찰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정체감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자기구조 수정이 필요할 때, 활발하게 탐색하여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를 수용하고 자기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스타일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정체감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Berzonsky, 1997), 따라서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내러티브 정체감 의미부여 중 높은 수준인 교훈/통찰과 통찰 수준을 유의미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보지향적 스타일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Berzonsky(1997)의 가정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정체감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

일, 내러티브 정체감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된 진로정체감 상태에 따라 진로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정체감 단계(VISA)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신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결과, 성취 단계, 탐색유예 단계, 유실 단계가 다른 진로정체감 단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탐색유예 단계가 유실 단계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탐색유예 단계는 유예 단계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Erikson의 이론에서 설명된 건강한 유예 집단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정체감 단계(VISA)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진로정체감 단계를 보다 세분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진로정체감 단계에 대해 이전보다 상세한 이해와 정보의 제공을 가능케 하여 실질적으로 각 진로정체감 단계에 따른 필요한 도움과 개입방식의 차별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이전의 결과에서처럼 정보지향적 스타일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rzonsky(1997)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구조를 관찰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때에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따라서 활발하게 탐색하여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를 수용하고 자기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한 정체감 스타일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Berzonsky, 1992a).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서도 정보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진로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활발한 탐색을 통해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정보지향적 스타일을 갖도록 돕는 것이 개인의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정체감 접근을 사용한 진로정체감 분류 상태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정체감 의미부여 중 통찰 수준의 진로태도성숙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훈과 통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없음과 교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신념은 통찰수준과 교훈과 통찰수준이 높고, 의미없음과 교훈 수준은 낮은 진로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따라서 의미부여 수준이 높은 교훈/통찰 수준과 통찰수준에서 개인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신념이 높은 것은 기대했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내러티브 정체감 의미부여 분류가 진로정체감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것에 적절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질적 연구 형태의 양상을 가지고 있으나 내러티브 정체감의 의미부여 방식을 통하여 개인의 진로정체감 발달 수준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에는 다룰 수 없었던 개인의 주관적인 정체감 양상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진로정체감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연구를 위한 새로운 측정방식과 방법을 살펴보고, 이들 분류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측정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진로정체감 단계(VISA) 모형은 기존 Marcia의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긍정적 유예 단계의 확인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으며,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체감 연구의 양적인 접근법과 질적인 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체감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던 제한된 연구방법 이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개인이 속한 정체감 단계의 특성과 모습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Berzonsky(1992b)가 개발하고 개정한 자아정체감 스타일 검사(Identity Style Inventory 3: ISI 3)를 연구진의 번역과 이중언어 사용자의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체감 스타일검사 중 규범지향적 스타일의 내적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정체감 스타일검사의 변안 과정에서 가능한 원칙도를 준수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척도의 타당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소수의 제한된 몇 대학의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내러티브 정체성 척도의 글쓰기 특성으로 인하여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을 표집 하여 동일한 설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실 정체감은 과정, 구조, 기능, 맥락 그리고 내용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호의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구조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분류체계는 정체감의 한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한 가지 정체감 분류 방법이 정체감의 다각적 차원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Marcia 모형과의 실제적인 비교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EOM-EIS 등 Marcia의 분류방법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새롭게 소개되는 정체감 접근 방식들의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근영 (2012).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연구의 대안적 접근: 서술적 정체성 발달. *청소년학연구*, 19(3), 85-108.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환 (2007).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경숙 (2009). 청소년의 정체감 연구를 위한 소고. *교육심리연구*, 23(4), 819-838.
- 박영희 (2011).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 자기평가가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 이상희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자아정체감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성숙의 차이. *상담학연구*, 14(2), 1015-1032.
- 송보라, 이기학 (2010). 한국형 진로신념척도(K-CBI) 개발과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3(2), 1-22.
- 양재원, 양은주, 김근영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서술정체성 의미부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55-76.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

- 정체감 지위 측정도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 이상희, 박진희 (2013). 대학생의 정체감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20(4), 23-40.
- 이상희, 오보영 (2013). 4개 차원에 따른 진로 정체감 단계(status)와 진로태도성숙 및 직업정체감 연구. 진로교육연구, 26(2), 21-42.
- 이상희, 오보영 (201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4단계와 6단계의 비교: 탐색유예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59-480.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정 (2010). 대학생의 가족지지, 진로정체감, 진로신념과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R., Shea, J., & Fitch, S. A. (1979).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assessment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2), 223-237.
- Berzonsky, M. D. (1989). Identity styl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3), 268-282.
- Berzonsky, M. D. (1990). Self-construction over the life span: A process perspective on identity formation. In G. J. Neimeyer, & R. A. Neimeyer. *Advances in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pp. 155-186). Greenwich, Conn: JAI Press Inc.
- Berzonsky, M. D. (1992a). Identity style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60(4), 771-788.
- Berzonsky, M. D. (1992b). *Identity Style Inventory (ISI3): Revised version*. Unpublished measu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rtland, NY.
- Berzonsky, M. D. (1997). Identity development, control theory, and self-regulation: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347-353.
- Blasi, A., & Glodis, K. (1995).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lf as subject. *Developmental Review*, 15(4), 404-433.
- Collin, A., & Young, R. A. (1992). Constructing career through narrative and context: An interpretive perspective. In R. A. Young & A. Collin (Eds.), *Interpreting career: Hermeneutical studies of lives in contexts* (pp. 1-12). Westport, CT: Praeger.
- Crocetti, E., Rubini, M., Luyckx, K., & Meeus, W. (2008).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from various ethnic groups: From three dimensions to five statu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83-996.
- Dunbar, N., & Grotevant, H. D. (2004). Adoption narratives: The construction of adoptive identity during adolescence. In M. W. Pratt, & P. H. Fiese (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Across time and generation* (pp. 135-161). Mahwah, NJ: Erlba.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raef, M. I., Wells, D. L., Hyland, A. M., & Muchinsky, P. M. (1985). Life history antecedents of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3), 276-297.
- Grotevant, H. D., & Adams, G. R. (1984). Development of an objective measure to assess ego identity in adolescence: Validation and repl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5), 419-438.
- Hirschi, A. (2010).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personality and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1), 39-49.
- Holland, J. J.,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
- Ibarra, H., & Barbulescu, R. (2010). Identity as narrative: Prevalence, effectiveness, and consequences of narrative identity work in macro work role transi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1), 135-154.
- Krumboltz, J. D. (1991). *Manual for the Career Belief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Beyers, W., & Vansteenkiste, M. (2005). Identity statuses based on 4 rather than 2 identity dimensions: Extending and refining Marcia's paradig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05-618.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59-187). New York: Wiley.
- Mauer, E. B., & Gysbers, N. C. (1990). Identifying career concerns of entering university freshmen using My Vocational Situ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2), 155-165.
- McAdams, D. P. (2006). The problem of narrative coherenc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 109-125.
- McLean, K. C., & Fournier, M. A. (2008). The content and processes of autobiographical reasoning in narrative ident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3), 527-545.
- McLean, K. C., Pasupathi, M., & Pals, J. L. (2007). Selves creating stories creating selves: A process model of narrative self develop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262-278.
- McLean, K. C., & Pratt, M. W. (2006). Life's little (and big) lessons: Identity statuses and meaning-making in the turning point narratives of emerg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1), 58-82.

- Psychology*, 42(4), 714-722.
- McLean, K. C., & Thorne, A. (2003). Adolescents' self-defining memories abou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635-645.
- Meeus, W. (1996). Studi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569-598.
- Meeus, W. (2011). The study of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2000-2010: A review of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75-94.
- Meeus, W., Van de Schoot, R., Klimstra, T., & Branje, S. (2011). Personality types in adolescence: Change and stability and links with adjustment and relationships: A five-wave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7(4), 1181.
- Melgosa, J. (198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10(4), 385-397.
- Pasupathi, M. (2001).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al past and its implications for adult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7(5), 651.
- Pasupathi, M., & Hoyt, T. (2009). The development of narrative identity in late adolescence and emergent adulthood: The continued importance of listener.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558-574.
-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 Schwartz, S. J., & Dunham, R. M. (2000). Identity status formulae: Generating continuous measures of the identity statuses from measures of exploration and commitment. *Adolescence*, 35, 147-165.
- Skorikov, V., & Vondracek, F. W. (1998).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t's relationship to other identity domains and to overal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January, 6(1), 13-35.
- van Hoof, A. (1999). The identity status field re-reviewed: An update of unresolved and neglected issues with a view on some alternative approaches. *Developmental Review*, 19(4), 497-556.
- Vondracek, F. W., & Porfeli, E. J. (2003). *The world of work and career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109-128.

1 차원고접수 : 2015. 01. 13.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3.

Comparisons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 Identity Style and Narrative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Lee, Sang-Hee

Jeong, Ji-Hoo

Dep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career identity status using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VISA), Berzonsky's(1992) identity style inventory, and narrative identity questionnaires. W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dividuals' career identity statu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beliefs. 243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confirmed that VISA, Berzonsky's Identity Style Inventory, and narrative identity were good alternative methods to identify career identity statu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stinctions among vocational identity status, Berzonsky's identity style, and narrative identity. Achievement, foreclosure and searching moratorium status had higher scores on insight level's narrative identity. In addition, information-oriented style had higher scores on insight level's narrative identity.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individuals' career identity status (VISA, Berzonsky's Identity Style Inventory, and narrative identity questionnaires) fo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beliefs. Specifically, individuals in achievement, foreclosure and searching moratorium status had much higher scor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beliefs. Fourth, individuals identified as information-oriented style had the highest scores fo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beliefs, and individuals identified as higher insight level had the highest scores fo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beliefs.

Keywords: vocational identity status, Berzonsky's identity style, narrative identity,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beliefs